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6



▶ 17회 예고
부왕이 된 수시마는 탁실라 무혈입성을 도왔던 망갈라로이 형제에게 정사를 위임하다시피 한다. 이를 지켜본 친위대장은 그들의 농간을 보고 직언하지만 수시마는 듣지 않는다. 결국 친위대장은 빈두사라의 소환장을 받고 떠난다.

수시마, 탁실라 부왕이 되다

수시마 군사가 인더스강 한 지류에서 숙영한 지 사흘 만이었다. 탁실라로 정찰 나갔던 선봉대장이 돌아왔다. 선봉대장은 군사 대여섯 명만 데리고 탁실라로 잠입해 들어갔는데,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와 수시마 군막 앞에서 대기했다. 목동으로 위장한 선봉대장의 옷은 갑자기 내린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소나기는 군막을 후둑후둑 때렸다. 수시마는 누운 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빗소리는 문득 수시마를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곳에 있는 이복동생 아쇼까를 생각나게도 했다. 수시마는 코끼리경주대회에서 자신에게 1등을 양보한 아쇼까가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아쇼까는 체격이 바위처럼 단단했고 특히 무술에 능했다. 많은 왕자들 중에 단연 발군이었다. 자신이 아쇼까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브라흐마교의 긴 기도문을 단 한 자도 빠트리지 않고 외우거나, 아버지 빈두사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빈두사라는 은근히 수시마를 사랑했다. 수시마가 어린 시절부터 아침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잘해왔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등 심성이 고왔기 때문이었다.

"부왕이시여, 정찰 나갔던 군사가 돌아왔사옵니다."

측근 신하의 말에 수시마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선봉대장이 왔다는 말이오?"

"예, 그렇사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선봉대장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부왕이시여, 탁실라는 반란수괴가 왕 행세를 하고 있사옵니다."

"그곳 군사는 어떤가요?"

"오합지졸이라 저희 군사가 들어가면 바로 진압할 수 있사옵니다."

선봉대장이 자신 있게 말했다. 선봉대는 강훈련을 받은 최정예군사였다. 도둑의 무리들이 합세한 반란군은 적수가 되지 못할 터였다. 탁실라 왕이 반란군에게 성을 빼앗긴 것은 인심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결코 성을 지키는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반란군이 쳐들어오자 성 안의 군사와 성민들은 그들에게 속속 투항해 버렸던 것이다.

"부왕이시여, 성민들이 모두 반란군 편에 선 것은 아니옵니다. 성 안에 살던 브라흐민들은 대부분 성 밖으로 나가버렸사옵니다."

"왜 그런가요?"

"반란수괴가 천민이기 때문이옵니다."

"나도 천민과는 협상할 수 없소. 기습작전을 펼쳐서 항복을 받아내시오."

그러나 선봉대장은 부왕과 의견이 달랐다.

"부왕이시여, 기습작전을 성공할 자신이 있사옵니다. 허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도 있사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오?"

"반란수괴를 유인해 생포하는 것이옵니다. 유인작전에 실패했을 때 공격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수시마는 선봉대장이 말하는 유인작전에 흥미를 느꼈다. 원래 잔혹한 싸움을 싫어하는 데다 천민을 멸시하는 성격 탓이었다. 반란수괴가 천민이라고 하니 자신과 싸울 상대가 못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단 조건이 있소. 난 반란수괴를 유인해 내더라도 그와 상대하지 않겠소. 선봉대장이 그 자를 처리하시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나는 천민이 왕 노릇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소. 망한 난다국을 보시오. 천민 마하빠드마가 세웠지만 결국 나의 할아버지 짠드라굽따 대왕님에게 무너지고 말았지 않소. 할아버지는 끄샤뜨리야였소."

수시마는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칠 정도로 컸다. 아버지 빈두사라는 끄샤뜨리야였고 어머니는 브라흐민이었던 것이다. 수시마는 탁실라에 입성한다면 반란수괴에게 쫓겨난 왕족들을 자신의 참모로 다시 기용할 방침이었다. 그래야만 탁실라 부왕이 된 자신의 권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겼다.

"쫓겨난 탁실라 왕의 자손들을 찾아보시오. 나는 탁실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만나보겠소."

"어렵지 않사옵니다. 탁실라 왕은 행방불명이오나 그의 친족들은 반란수괴에게 협조하는 척하면서 성 안에 살고 있사옵니다."

"사실이오?"

"반란수괴에게 밀려난 탁실라 성안의 왕족들이 우리 정찰군사를 도왔사옵니다."

"아, 잘된 일이오. 어서 그들을 불러오시오."

"낮에는 위험하니 밤중에 데리고 오겠사옵니다."

마침 장대비처럼 퍼붓던 소나기가 멈추었다. 충직한 선봉대장은 자신이 한 말대로 움직였다. 불과 한나절 만이었다. 달이 뜨지 않는 컴컴한 밤이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숯덩이 같은 밤중에 행방불명된 탁실라 왕의 동생 두 명을 데리고 왔다. 수시마는 그들을 군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어서 오시오."

"부왕이시여, 저희들은 살아 있으나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옵니다. 탁실라를 해방시켜주시옵소서."

"왕은 어디에 있소?"

수시마가 묻자마자 왕의 동생 중 한 명이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성 안의 소문과 달리 쫓겨난 탁실라 왕은 행방불명이 아니었다.

"우물감옥에 계시옵니다."

"쯧쯧."

수시마는 혀를 찼다. 지옥 같은 우물감옥에 던져졌다면 누구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런데 그대들은 왜 성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오?"

"미처 성 밖으로 도망치지 못했사옵니다. 반란수괴에게 겉으로 협조하는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사옵니다."

선봉대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내일 반란수괴에게 가서 말하시오. 빠딸리뿌뜨라에서 사신 일행이 오는 것을 봤으니 성 밖으로 나가 강변에서 마중을 하자고 말이오."

수시마가 눈을 껌벅거리며 말했다.

"그 말을 반란수괴가 믿겠소?"

"수괴는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사신들을 환영하려고 할 것이옵니다. 부왕님을 사신의 우두머리로 착각한 채 인정받으려고 크게 환영하지 않겠사옵니까?"

죽은 탁실라 왕의 동생 두 명은 반드시 성공시켜 반란수괴에게 보란 듯이 복수하겠다며 이를 갈았다.

"저희들은 원수를 갚고자 살아남았사옵니다. 내일이야말로 반란수괴가 우물감옥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옵니다."

"어서 성으로 돌아가 반란수괴에게 알리시오."

"예, 내일 아침 마우리아왕국 사신 일행이 강을 건너올 것이라고 보고하겠사옵니다. 제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면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지금 돌아가겠소?"

선봉대장이 한 마디 했다.

"오늘은 성 밖에 있다가 내일 새벽에 들어가시오. 그래야 반란수괴가 그대들의 말을 더 믿을 것이오."

"그렇게 하겠으니 꼭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들이 군막을 나간 뒤 수시마는 선봉대장만 자리에 남도록 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니 수시마는 불안했다.

"저 자들이 방금 한 말과 달리 반란수괴에게 밀고한다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이오?"

"부왕이시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어째서 그렇소?"

"반란수괴는 탁실라 왕을 죽인 그들의 원수이기 때문이옵니다. 죽은 탁실라 왕은 저 자들과 형제이옵니다. 좀 전에 저 자들의 표정을 보지 않았사옵니까? 복수심에 얼굴을 부들부들 떨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일을 위해 기도하겠소."

"내일 저는 산속에 매복해 있을 것이옵니다. 반란수괴가 마중하러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급습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왕께서는 저희 군사가 나타날 때까지 강을 건너서는 안 되옵니다."

"알았소."

다음날 아침. 수시마는 군막을 나와 초조하게 강변을 거닐었다. 오후가 되자 더욱더 긴장이 되었다. 군막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수시마 주변에는 신하 몇 사람만 남고 모두 다 산속으로 들어갔다. 선봉대장은 군사를 이끌고 산속 바위와 숲 뒤로 몸을 은폐했다. 선봉대장이 잘 구사하는 매복작전이었다. 석양이 기울 무렵이었다. 강물에 석양빛이 떨어져 사금처럼 번쩍였다. 그때 멀리서 석양을 등지고 말이 한 마리 달려오고 있었다. 탁실라 깃발을 든 군사로 보아 반란수괴의 전령이 분명했다. 수시마는 손에 진땀이 났다. 반란수괴의 전령이 강 저쪽에서 사신일행을 확인했다.

수시마와 몇몇 사신이 나와 강변에 섰다. 그러자 종이가 달린 화살이 하나 날아왔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사신 일행을 환영하오. 탁실라 왕인 나는 그대들을 진심을 다해 맞이할 것이니 잠시 기다리시오."

수시마에게 종이를 넘겨준 사신이 침을 퉤 뱉었다.

"부왕이시여, 반란수괴가 왕이라니 기가 막히옵니다."

"흥분하지 마시오. 저 자들이 눈치 채어서는 안 되오. 우리도 내 이름으로 환영해 주니 고맙다는 화살을 보내시오."

수시마 쪽의 강변에서 화살이 날아가자 종이를 펴본 전령이 즉시 돌아갔다. 한편 산속 바위 뒤에서 은폐하고 있던 선봉대장 휘하의 군사들은 몸을 더욱 엎드린 채 '공격개시' 명령만 기다렸다.

이윽고 반란수괴가 환영사절을 데리고 나타났다. 반란수괴만 말을 타고 있었다. 수괴의 참모와 호위 군사들은 걸어오고 있었다. 대국의 사신 일행에게 갖추는 접빈의 예였다. 반란수괴는 강변에 이르러서야 말에서 내렸다. 호위 군사들이 좌우로 서서 부동자세를 취했다. 또 다시 종이가 묶여진 화살이 날아왔다.

"탁실라 왕은 사신 일행을 환영하오."

수시마도 화살로 응답했다.

"마우리아왕국 사신 일행은 그대들의 환영을 잊지 않겠소."

강은 넓었지만 깊지 않았다. 코끼리가 건너가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코끼리에 앉은 수시마의 신하들이 붉은 깃발을 높이 들었다. 선봉대장과 사전에 약속한 신호였다. 깃발이 강바람에 펄럭이자 갑자기 함성소리가 들려왔다. 선봉대장 휘하의 군사들이 반란수괴 군사를 공격하는 함성이었다. 반란수괴가 당황하여 말을 타지도 못했다. 자신의 말이 저만큼 달아나버렸다.

반란수괴 군사들은 뒤에서 벼락 치듯 급습하는 수시마의 선봉대장 군사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강물에 뛰어들어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화살을 맞았다. 강물이 피로 벌겋게 물들었다. 이윽고 반란수괴도 칼에 맞아 쓰러졌다. 그러자 반란수괴의 군사들 모두 두 손을 들고 항복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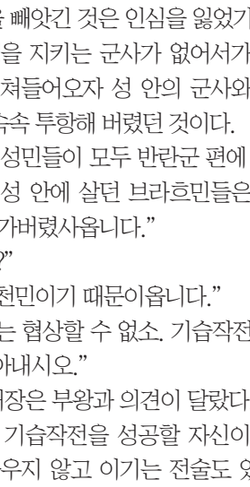
수시마 정예군사는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다. 반란수괴의 잘린 목이 깃대 끝에 올라가자 정예군사의 사기는 더욱 충천했다. 선봉대장은 즉시 선봉대 정예군사를 이끌고 탁실라성으로 공격해 갔다. 반란수괴의 잘린 목은 선봉대장 참모가 들고 달렸다. 그런데 무혈입성이나 다름없었다. 탁실라성 안에서 저항하는 군사는 아무도 없었다. 죽은 탁실라 왕의 동생들이 마우리아왕국에서 새로운 부왕을 보냈다고 소문내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반란수괴의 목은 또 다시 깃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성민들이 쏟아져 나와 환호했다. 그 자리가 바로 수시마 부왕의 취임식 자리로 바뀌었다. 수시마가 호기 있게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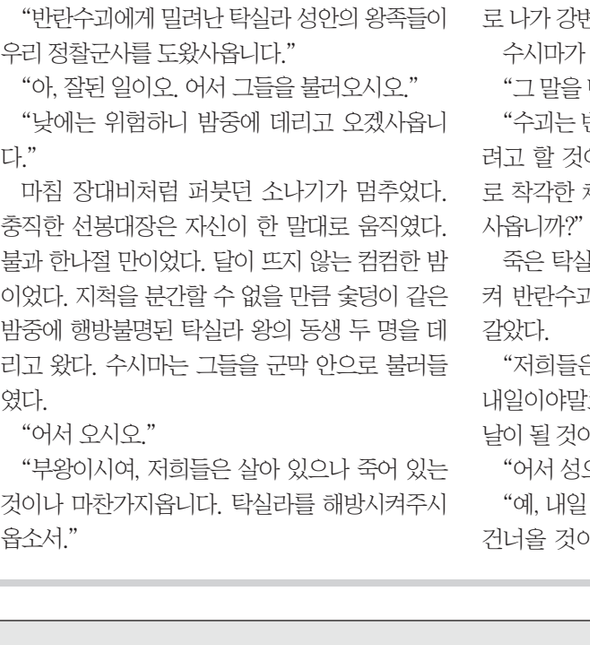
"저 수괴를 우물감옥에 처넣어라!"

성민들이 다시 와아와아! 환호했고, 죽은 탁실라 왕의 동생 두 명은 수시마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 덕분에 무혈입성한 수시마는 꿈꾸듯 감격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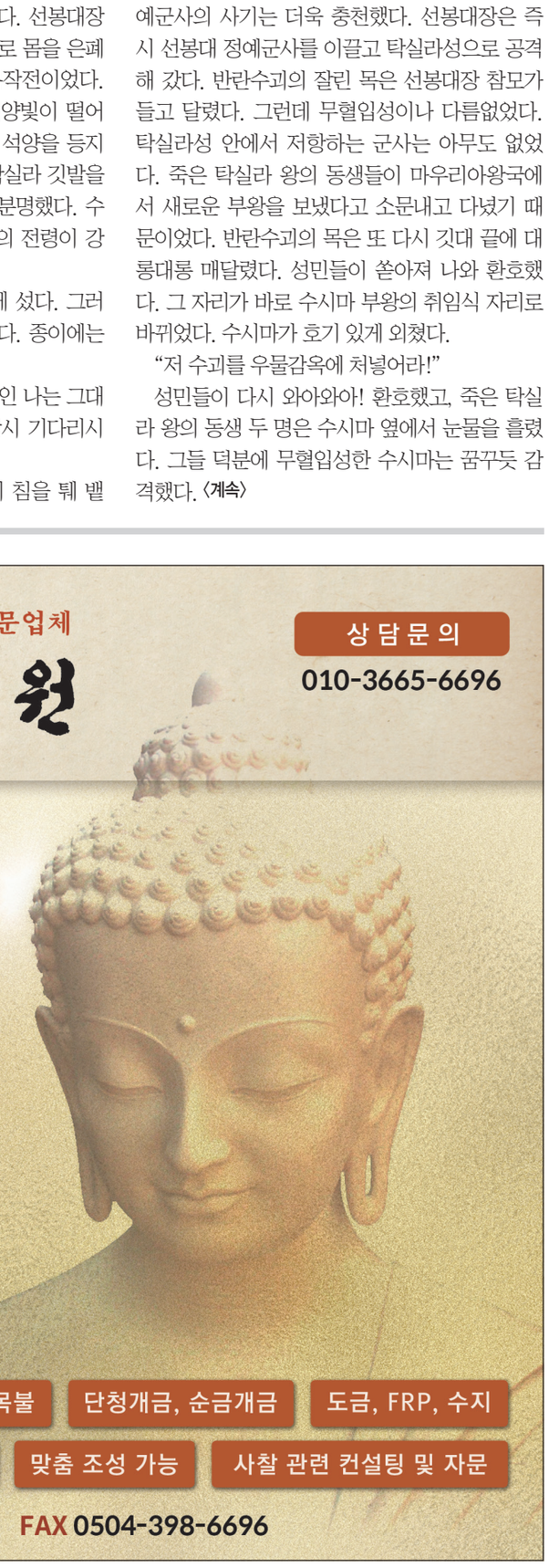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무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회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